

## 포천도시공사,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에 전산장비 기증

呂 김정종 기자 | © 승인 2022.08.10 16:16



[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포천도시공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에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교육용 및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중고 PC, 모니터 등 전산장비 25대로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의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지원 요청에 의해 진행되었다.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정보문화사업을 조성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진행되는 것으로 기증된 전산장비는 성능을 개선해 정보화에 소외된 계층에게 보급될 예정으로 공사는 매년 ‘PC 보내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포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매년 기증하는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문화·소통의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는 공기업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종 기자